

에이즈의 최전선 ‘유티업소’

최 남 숙 / 자유기고가



• 화양리의 밤풍경 - 유티업소의 가장 끝에 사창기가 밀집해있다.

“왜 이 짓을 하나구요? 공순이 보다가 낫지 않아요?”

차라리 취재기자가 남자라면 편 하겠다고 투덜거리는 Y양의 첫 대 답이었다. 천호동에서 근무한지 2년 반, 나이는 23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 동안 직장생활

을 경험한 적도 있다는 머리가 유난히 긴 Y양은 ‘영겁결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지만’ 비교적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자 서슴없이 “돈” 때문이라고 했다.

쏟아지는 휴대폰 주위 아가씨들에

비해 절약하는 타입이라는 Y양이 하루에 상대하는 남자는 10명 안팎,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월 150만원 정도로 방세, 기동서방요금, 옷값, 화장품값, 약값을 제외하고도 5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조다 같은 놈팽이 때문에 저축

한 돈 다 날리는 아가씨들도 있어요. 정말 등신들이죠.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들어온 곳인데... 물론 이곳이 좋아서 들어오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사연이 있죠. 물론 말은 잘 안하지만요...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곳이 이곳이에요."

Y양의 말끝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영업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일어나 버렸다. 그 시각은 오후 4시경. 재떨이에 담배꽂이가 가득하다.

65만과 120만 사이

Y양과 같이 성을 파는 직업여성을 우리는 윤락여성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에는 윤락 밀집지역으로 천호동, 청량리, 미아리, 용산역, 영등포역 등이 있는데 실제 이들 지역 외에도 안마시술소, 여관, 다방, 호텔, 심지어는 동산로 등지에서도 윤락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윤락여성의 수를 최소 65만명에서 최고 120만명까지로 보고 있는데 최소 65만명이라 하더라도 이는 15세~45세 가임(可妊)여성의 13분의 1에 해당된다.

거기에는 아들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 포주, 업주, 펌프, 기동서방, 조직폭력배 등을 포함하면 4백만 이상이 매춘 산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시장의 규모는 연 4조원, 구매자인 매음남성이 하루 1백만명에 도달한다. 특히, "불황을 모르는 공룡산업=매

춘산업"이라 할 만 한데 바로 이 때문에라도 윤락여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면 Y양의 생활을 좀 더 알아보자.

현재 윤락 집단지역인 천호동 423번지에는 1백 30여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때 집단 윤락가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혔던 청량리 588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곳의 윤락여성은 포주에게 매인 윤락여성과 그렇지 않은 '프리'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별집'을 얻어 놓고 호객행위를 한다. 한 업소당 별집은 5~10개가 있고 6~10명의 윤락여성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별집이 아닌 여인숙으로 매음남성을 유인하는 '개인택시'들도 있지만, 이는 다른 지역보다 그 숫자가 적다고 한다.

한 번의 화대는 평균 4만원, 하루에 많게는 15명 이상의 남성을 상대한 적도 있지만 보통 10명 안팎을 상대하며 그렇게 버는 실수입은 월 150~200만원 정도.

인신매매로 유입된 여자들이 많다고 한때는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이 딱지광고 혹은 'PR통'이라고 부르는 허위광고를 이용하는데 '숙식제공, 월수 2~300 보장' 두 구절만 들어가면 삼중 팔구 이곳이라는게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더욱이 요즘은 아가씨 조달이 힘든 이유로 사사사철 딱지 광고를 이용한다는 것이 Y양의 얘기다.

"이런 곳일수록 이직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영 판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업소만 바꾸는 거죠... 일단 자리가 비게 되면 주인의 태도가 달라져요. 언제들었는지 친구 이름을 대면서 전화해보라고 하죠. 물론 전화는 안하죠. 어떻게 해요. 안면을 이용하는데 허탕을 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딱지광고를 이용하는데 아시잖아요. 젓북대, 역전화장실, 스포츠신문에, '당일채용, 숙식제공, 월수 얼마보장'하구요. 그럼 전화가 의외로 많이 와요. 애들이 순진한 건지 멍청한건지. 하기가 저도 그렇게 왔지만요"

하지만 전혀 모르고 오는 예는 별로 없고 설명 모르고 왔다 해도 곧 '이 생활에 적응한다'고 Y양은 덧붙인다.

여자가 집 나오면 별 수 없다?

그럼 왜 엄청난 여성이 이곳으로, 그것도 자청해서 오는 것일까. 한 조사에 의하면 윤락유입의 동기는 친구나 아는 사람의 유혹(16.9%), 성폭력·인신매매(11.8%) 외에도 호기심이나 향락생활이 10.8%나 차지해서 사회에 만연된 사치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장 큰 이유가 돈(60.5%)으로, 연령이 높을 여성일수록 생계의 목적이 절대적인 이유이다. 또한 실제로 지역, 업태, 포주 및 업주와의 분배방식, 접객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들 여성의 평균 실수입액은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취업 평균임금이 60만원이 안되는 현실에서 140여만원은 2배 이상의 고소득이다. 바로 이와 같



· 일명 '벌집'의 영업은 어둠과 함께 시작되고 낮에는 붉은 커튼만이 쳐져있다.

은 이유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윤락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락동기가 무엇이든 가장 확실한 과정은 '가출'로 이루어진다. 실제, 윤락여성 91.6%가 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실태를 대변한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진학도 어렵고, 또 도시에 나가고 싶어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워낙 가출한 애들이 많아서 별다른 죄의식도 못느꼈죠. 부산으로 무작정 갔는데 막상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집을 나온 동네친구를 찾아갔는데 회사원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더니 알고 보니 그렇고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가출한 시골애들이 다들 어디 갔는지"(김순자, 26세)

가출의 원인으로서는 가정의 불화와 가난, 성폭력 경험을 들 수 있는데 가출당시 평균연령이 21.4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폭력은 윤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여진다.

'13살이었던 어느날 밤에 이복 오빠의 손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웠지만 도망갈 곳도 없어서 자고 있는 엄마의 손을 꼬집었다. 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엄마의 손이 꼬집은 멍든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후에도 엄마는 한 번도 구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밤 강간을 당하면서 일년을 보냈는데 어느날은 재오빠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윤간을 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길로 가출을 했지만 막상 갈데가 없었다. 술집밖에는'(우지영(가명), 26세 : 두레방사레 제공)

윤락생활로 뛰어드는 평균 나이는 20~24세. 최근에는 10대 후반의 '영계'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성기'는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윤락생활 시작 3~4년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고 30대 이후가 되면 '퇴물'이 된다.

퇴물이 된 여성의 진로는 기지

촌 혹은 외각지로 벗어나야 하고 40대 하급이 되면 펌프, 밥을 짓거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아줌마 혹은 담요부대로 변하다.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곳이란 말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근원에는 역시 돈(63.3%)과 다른 생활에 적응(20.3%) 문제가 존재한다.

전화로 알게된 D양(27)은 '여관 발이로' '1회 사정을 허락하는 짧은 시간당 3만원을 받는데 하루에 많게는 18여명의 남성을 상대한 적도 있다. 몇 달 전만해도 포주에 속한 몸이었으며 포주에게 진 빚과 일수금을 갚기에는 5년이나 걸렸다는 D양은 '송충이는 술일을 먹어야 한다'는 말로 윤락생활을 '종치지' 못한 경험을 늘어 놓았다.

"한번은 벗어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풍순이가 되기에는 씹씹이가 너무 해두고 힘든 것은 싫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뒤로 딴 생각은 안해요. 몇 년 더 고생해서 웃가게나 하나 차리면 좋겠는데. 결혼요? (호호) 아마 결혼해서 내 남자랑 그짓하면 다음날 그럴걸요. 가슴만지고 키스까지 했으니까 얼마 더 내라고요."

D양은 결혼이라는 대목에서 그만 웃어버린다. 대부분의 윤락여성들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가장 큰 희망이라면 결혼(25.3%) 보다는 경제적 자립(64.4%)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같이 조그만 카페나 옷

가계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희망을 이루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고 연령과 종사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몸을 팔아 하는 장사'인 만큼 건강과 기혼녀(15%)의 자녀양육 문제이다.

에이즈의 시각지대

윤락여성은 잦은 성교와 낙태로 인해 성병, 약물중독, 각종 질병에 시달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병 감염은 56.1%, 임신중절 경험은 67.8%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소화기, 비뇨생식기계 등 성생활과 관련된 질병률은 일반여성의 5~50배까지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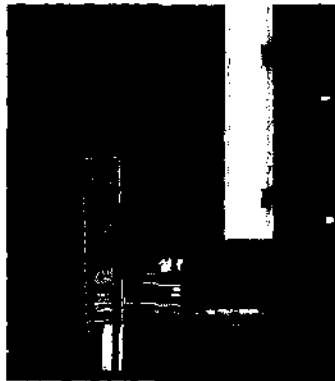
마약복용의 경우 대마초 27.7%, 신장안정제 42.5%, 러미라(혹은 루비킹) 29.2%를 복용하는데(김경빈, 1991) 마약이 아니라도 약물중독은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수면제, 거담제는 상습적으로 복용하며 기타 감기약, 신경통약, 거담제 등의 약물을 무차별로 섞어 마시는 속칭 '뽕크레이디'도 7.4%에 이른다.

하지만 수치상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당국의 정기검진 조차 강하게 불신하고 있는데 대상여성들의 건강 일반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일반인들의 성병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성병검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국이 실시하는 성병 정기검진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윤락가에

이즈감염의 시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감염 여성환자 중 윤락여성의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윤락업소에 등록된 여성에 한해 일정기간 혈액검사와 성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상여성은 90년에 이미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매매춘이 부허가업소에서 더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점, 전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완치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우려한 포주나 업주의 편법 등 이러한 방법으로 성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발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여성에게 성병을 전염시켜준 남성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남성에게 의한 전염의 우려는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춘은 집단사창가는 물론, 여관, 안마소 등에서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성 불감증 시대

'에이즈가 한창 떠돌아질때는 그제 무서워 윤락가를 가지 않는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친구들이 콘돔 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술이 취해서 정신이 어다 있겠나'(김우종(가명), 회사원 30).

에이즈가 무절제한 성행위에서 감염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이미 윤락가는 에이즈의 시각지대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며 더욱이 윤락행위를 어쩔 수 없는 필요악(81%)으로 인정하는게 일반적인 남성들의 사고이고 보면 에이즈 감염의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매매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이상 그런 곳에 가는 남자가 나쁘다 혹은 그런 짓을 하는 여자들이 더 나쁘다 하는 식의 논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윤락여성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현실적인 간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집단 윤락촌을 형성해서 마음놓고 영업을 하게 하든 아님 우리사회가 그 여성을 몰아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든지 해야겠죠."(최춘화, 회사원 28)

공급자 뒤에는 수요자가 있다. 매춘 뒤에는 매매춘이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사회가 있다. 주택가에서 5분 거리에 윤락지가 있고, 10대 후반의 남학생에서 부터 일명 '딱지때기' 풍속도가 유행한다. 성을 팔고 사는 것에 불감증인 사회, 그것이 우리 사회이다. 그러므로 '눈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윤락 여성의 시각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A